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올해 하반기에 채용 줄이는 미 기업 늘어난다
- Bloomberg: 미 제조 활동, 3여년 만에 빠른 성장...강한 수요
- Bloomberg: 아틀란타 연준 총재 "올해 금리 한 차례 인하...고용 지켜봐야"
- Reuters: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고 지표 확인해야"
- Bloomberg: 미 노동시장 둔화하나...신규 실업 청구건 증가

[미국 금융]

- Investopedia: 내일 연준 의장 발언, 증시 향방 결정할 수 있어

[무역전쟁]

- WSJ: 미국, EU가 관세 낮출 때까지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27.5% 유지

[에너지]

- WSJ: 미국 배터리 회사들, 해외로 눈 돌려

[주택]

- YahooFinance: 7월 미 기존 주택 판매 예상 외로 증가

[오일]

- Bloomberg: 원유 가격 상승세...미국 원유 재고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면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월마트, 매출 상승...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불구
- Bloomberg: Boeing, 중국에 최대 500대 항공기 판매 협상 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More U.S. Companies Plan to Slow Hiring in Second Half of 2025 올해 하반기에 채용 줄이는 미 기업 늘어난다

- 최근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 5개 중에 한개 꼴로 올해 하반기에 채용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Novo Nordisk와 Meta Platforms 같은 회사들은 일부 분야에서 고용을 중단하고 있다.
- 회사들이 추가 채용을 주저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확실성, 관세, 불법 이민자 단속, AI 채택 등에 따른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US Manufacturing Expands at Fastest Pace Since 2022 on De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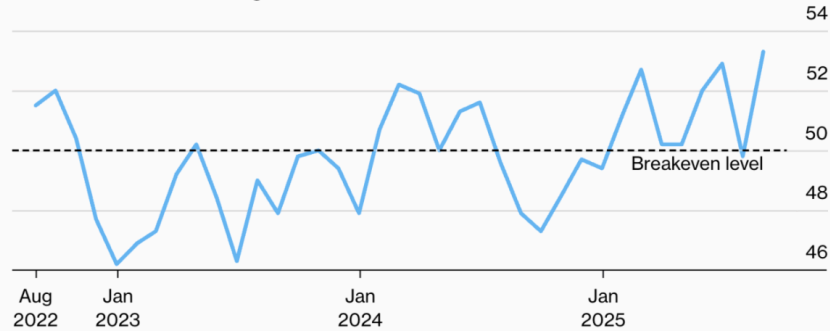
미 제조 활동, 3여년만에 빠른 성장... 강한 수요

- 미 제조 활동이 3여년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강한 수요 탓이다. 그러나 강한 수요는 인플레이션에도 동시에 압력을 주고 있다.
- S&P 500 8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PMI)예비치는 3.5포인트 오른 53.3을 기록해 지난 202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오늘 목요일 발표되었다. 수치 50 이상은 성장을 의미한다.
- 이 같은 수치 상승은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관련 종합 관리자 지수도 키웠다. 종합 관리자 지수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US Factory Activity Expands at Fastest Pace Since 2022

A manufacturing pickup helped lift a measure of overall business activity

— S&P Global manufacturing PMI



Source: S&P Global

Note: A level of 50 separates expansion and contraction.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Bostic Still Sees One 2025 Rate Cut, But Monitoring Labor

아틀란타 연준 총재 “올해 금리 한 차례 인하...고용 지켜봐야”

- 아틀란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지난 6월 예상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금리가 한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노동 시장의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이 일단 한방향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앞으로 향하다 방향을 트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금리 수준은 약간 제약적인 수준인데 내년에 연준 관리들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선물 거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16일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0.25%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Fed's Schmid says no urgency to cut interest rates but more data to come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고 지표 확인해야”

-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인 Jeffrey Schmid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듯 하고 인플레이가 연준 2%보다 목표 보다 높으며 노동시장은 아직 견조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 이에 따라 그는 금리 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 금리 정책 표결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는 현재 금리가 2%보다는 3%에 가깝다면서 단기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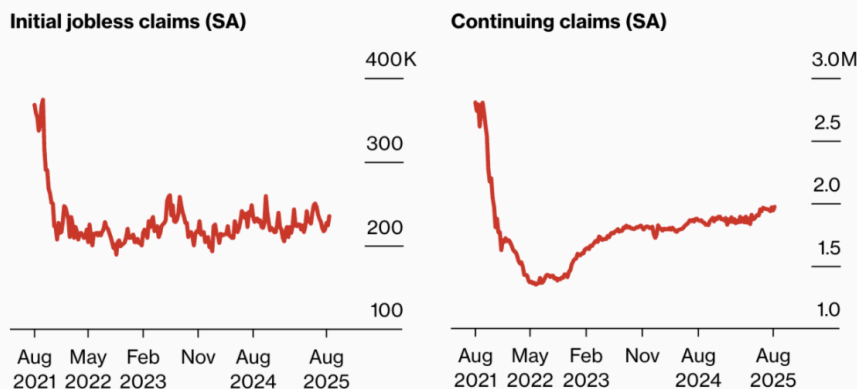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ise, Adding to Signs of Slowing Labor Market

미 노동시장 둔화하나...신규 실업 청구건 증가

-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올해 6월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 전체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상승했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는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로 끝난 주의 신규 실업 청구건수는 11만 1천 건 늘어난 23만 5천 건을 기록했다.
- 전체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1백 97만 건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래 최고치다.
- 최근 관련 지표에 따르면 고용 둔화에 실업률 상승, 그리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추세들이 나오고 있다.

US Jobless Claims Rise, Signaling Labor Market Slowing

Recurring filings climb to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21



Source: US Labor Department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Investopedia: Jerome Powell's Jackson Hole Speech Could Make or Break the Stock Market Rally****내일 연준 의장 발언, 증시 향방 결정할 수 있어**

-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내일 금요일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발언이 현재 랠리 중인 증시의 향방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 도이치뱅크 분석가들은 “파월의 발언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주택 건설 업체나 작은 종목 등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의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Investopedia 기사

[무역전쟁]**WSJ: U.S. Will Preserve 27.5% Auto Tariffs on EU Until Bloc Moves to Reduce Levies****미국, EU가 관세 낮출 때까지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27.5% 유지**

- 미국은 EU가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때까지 EU 자동차에 대한 27.5%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 EU가 미국산 견과류, 유제품,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해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할 경우, 미국은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다.
- 또한, 미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유럽산 상품에 1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관세가 면제된다.
- 양국은 15% 미만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WSJ 기사

[에너지]**WSJ: American Battery Companies Are Shopping Abroad****미국 배터리 회사들, 해외로 눈 돌려**

- 미국에서의 청정에너지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 배터리 회사들이 새로운 제조 기회를 찾고 있다.
- 실리콘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Group14 CEO Rick Luebbe은 “아시아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제조 과정을 다른 기업에 맡기지 않고 완전히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 기업은 SK의 지분 25%를 보유하고었는데, 수요일 마감한 4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거래를 통해 SK의 실리콘 배터리 소재 생산을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 또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배터리 회사 Lyten은 스웨덴의 배터리 스타트업 Northvolt의 독일과 스웨덴 소재의 생산 시설을 인수했다.

- 상품 가격 책정 기관 Argus Media의 배터리 책임자 Thomas Kavanagh는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상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배터리 기술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WSJ 기사

[주택]

YahooFinance: US existing home sales tick up unexpectedly in July 7월 미 기존 주택 판매 예상 외로 증가

- 7월에 미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외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판매 속도는 둔화 상태인데,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율이 구매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 전국부동산협회(NAR)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주택 판매가 전월에 비해 2% 상승해 계절별 조정 연율로 3백93만 채에서 4백1만 채로 증가했다. 당초 예상치는 3백92만 채인데 연율 증가율은 0.8% 판매가 증가했다.
- 한편,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지난 가을이래 가장 낮은 6.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모기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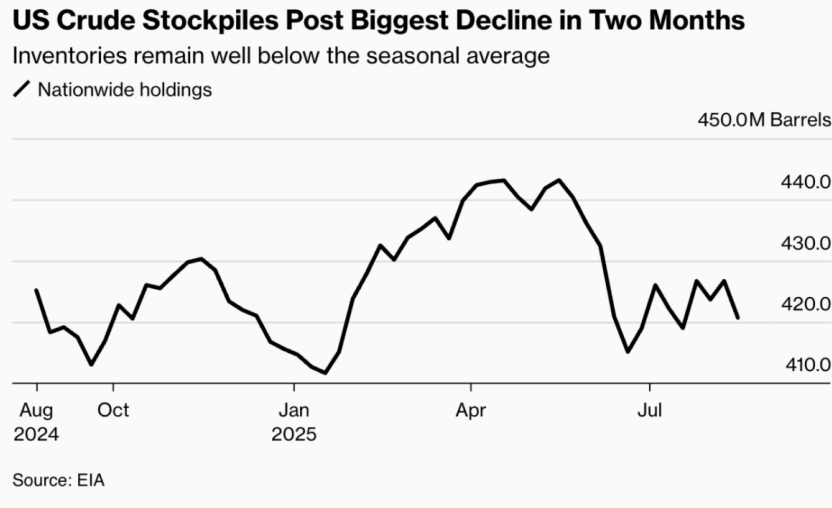
YahooFinance 기사

[오일]

Bloomberg: Oil Extends Gain After US Stockpiles Shrank Most in Two Months

원유 가격 상승세...미국 원유 재고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면서

- 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67달러 이상에서 거래되었다.
- 지난주 미국 원유 공급량이 600만 배럴 감소했는데, 이는 6월 중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 많은 트레이더들이 올해 말 원유 재고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 세계 재고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 한편, 올해 유가는 여전히 10% 이상 하락했다. 트레이더들은 공급 과잉 및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Walmart Wins Over More Shoppers as Tariffs Push Prices Higher 월마트, 매출 상승...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불구

- 월마트의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시기에 회사의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 월마트는 가격을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관세 비용을 흡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 혜택 및 빠른 배송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월마트는 최근 분기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인력 감축과 근로자 및 소비자 보험금 청구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Bloomberg: Boeing in Talks to Sell as Many as 500 Planes to China Boeing, 중국에 최대 500대 항공기 판매 협상 중

- Boeing이 중국에 최대 5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 2017년 이후 침체되었던 항공기 중국 판매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양측은 제트기 모델의 종류와 수량, 일정 등 복잡한 항공기 판매 조건을 아직 조율 중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Boeing 항공기 주문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 아직 미국-중국 간 무역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이 계약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역 협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 주요 기술주 동반 약세 마감...전날보다 낙폭은 줄어
엔비디아 0.14%↓..."파월 발언 매파적이면 더 큰 압력"**

미국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전날에 이어 20 일(현지시간)에도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낙폭은 전날보다 대체로 줄었다.

시가총액 1 위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0.14% 내린 175.4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한 뒤 168.80 달러까지 떨어지며 170 달러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크게 줄였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